

서호인의 '소설처럼'



읽기, 말하기, 쓰기

정용준 장편소설 '내가 말하고 있잖아'

팬데믹이 여러 사람의 일상을 맞아간 것은 당연하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큰 영향력을 미쳤을 듯하다. 가령 올해 중학교 2학년인 아이가 기억할 자신의 10대는 어떤 모습일까. 범위를 더 좁혀서, 올해 여름은 어떻게 기억될까. 전염병이 나라를 불문하여 창궐하고, 학교 수업의 비대면 영상 수업으로 대체 되었으며, 여름방학은 기이하게 짧아졌는데, 거기에 기록적으로 긴 장마가 믿을 수 없게 많은 비를 오랫동안 뿌렸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디스토피아 소설의 세계관 정도로 여겨질 만한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특히 그즈음의 청소년에게 이것은 모두 현실이다. 소설이나 영화가 아닌, 우리 앞에 실존하는 현실, 그 자체이다. 정용준 장편소설 '내가 말하고 있잖아'의 배경은 1999년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우순우순 예쁘고 예쁘고 예쁘고 그때만 하더라도 노스트라다무스니, 밀레니엄버그니 하는 이름을 가져다 붙이며,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일어날 극적인 사태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은갑급 들어 있었다. 주인공 '나'는 중학생이다.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거라 호들갑인 사람들이 우습지만,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 실망하는 소년이다. 소년은 말을 더듬는다. 독특한 상황이 아닌 엄마가 어떻게든 교정원까지 보내야 할 정도로 소년의 언어 생활은 '문제'가 있었다. 학교에서 소년은 입을 닫아 버린 아이이고, 많은 아이들이 소년을 무시하고 괴롭힌다. 어떤 아이는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 소년을 이용하기도 한다. 짧은 인생에서 여러 부침을 겪은 소년은 그래서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다. "과거의 난 그랬다. 잘해 주기만 하면 돌병이도 사랑하는 바보였지. 하지만 옆에 살이 된 지금은 다르다." 소년의 마음은 이토록 굳게 닫혔다.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건 언어교정원 사람들이었다. 각기 다른 증상을 보이지만, '이야기하기'나 '소리 내어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소년에게 손을 내민다. 이 소설에서 가장 빛나는 지점은 악의 없는 인간들의 나이를 뛰어넘는 연대

그리는 장면이다. 소년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존재들(가정에서의 보호자 혹은 학교에서의 선생님)이 아닌 상관관계가 없는 어른이 소년을 다독겨릴 때, 그 사실 없는 관계에서 받는 선함의 위로가 적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나에게 잘해준다고 하여 돌병이라도 믿기는 커녕 왜 저러는지 따지기 때문일 것이다. 왜 이러지? 나에게 무엇을 얻어 가려고 하지? 의심하면서. 그런 의심과 분노와 성찰과 고통을 소년은 글로 쓴다. 누군가 읽기에 그것은 의미 없는 낙서이거나 불량한 일기일 수도 있지만, 읽기에 따라 그것은 소설이 된다. 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정원 사람들의 교류와 더불어 소년은 무언가를 백지에 써서 남김으로써 언어적 심리적 장애를 극복해 간다. 일기 쓰기에서 시작된 소년의 글쓰기는 '나와 종이 사이 한 뼛도 안 되는 허공 속에 일렁이고 있는 문학적 표현'을 고민하는, 그러니까 소설 장르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확대된다. 이 대목에서 '내가 말하고 있잖아'는 결핍을 지닌 소년의 성장소설이자 교양소설은 물론이고, 소설 장르에 대한 메타

적 고민이 담긴 예술가 소설로까지 의미가 확장된다. 결국 소설은 자신에 대해 쓰는 것이다. 문학적 표현을 빌려, 남들이 읽을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는 중요한 후작업이다.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소년의 경우에는 그렇다. 많은 작가가 그러한 것이다. 소년이 앞으로 좋은 어른이 될 것만 같은 분위기가 소설의 배경인 2000년의 왕십리를 감싼다. 소년 주위에 있던 좋은 어른이 소년을 좋은 어른이게 할 것이다. 소년을 좋은 사람이게 하는 게 하나 더 있다. 언어를 수단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일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을 소설로 써 왔던 정용준 작가가, 사뭇 다른 분위기의 신작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러나 소설을 읽는 이는 다 알 것이다. 거기에 담긴 묵직하고 단단한 세계는 여전히 좋은 것이다. 팬데믹을 맞이한 10대에게(그리고 모두에게) '내가 말하고 있잖아'를 권해 본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글로 써 보길 역시 권해 본다. 읽기를, 말하기를, 쓰기를. 그리하여 지금 여기의 공기를 깨끗으로 만들기를. (시인)

의료칼럼

시골 의사, 도시 의사



임지현 영광기독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령대가 대부분 중·장년층이라는 점이 있지만, 광주 시내에서 일할 때 보았던 부모님 세대 어른들 중에서 상당수가 광주에서 사는 자녀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신, 전남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광주라는 도시가 전남과 상호 유기적인 생활 공동체라는 점이 가장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또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는 다른 점은 이제 도로 여건이나 교통 사정이 너무 좋아졌다는 것이다. 고속도로까지는 아니지만 신호등 없는 4차선 국도 22번을 타고 영광읍에서 출발하면 광주까지 약 30분이면 도착한다. 새 병원에 부임해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일이다. 70대 고관절 골절 환자가 119를 통해 응급실에 오셨다. 기존처럼 골절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견인 추를 다리에 달아 통증을 줄여 주고 입원시킨 뒤, 수술적 치료를 준비했다. 그런데 다음 날 보호자가 내원해 자신이 사는 광주로 전원을 요청했다. 나를 애써서 치료를 계획했던 터라 약간 허탈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녀들의 간병이 더 수월한 점이 이해가 되기도 해서 이송해 드렸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부임 첫 주 내에 두어 번 반복되자 응급실에 환자가 방문했을 때 먼저 하는 일이 생겼다. 그

것은 보호자와 직접 연락해서 영광에서 진료할지를 문의하는 것이다. 물론 요즘은 방송과 신문, 인터넷에서 의료 정보를 자주 접한다. 잘 구별하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어느 정도 상업성을 띠고 있어서 쉽게 현혹돼서는 안 된다. 치료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 그 폐해가 환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의료 영역에 어느 정도의 국가 규제에 충분히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규제가 그렇듯이, 아무리 아픈 환자도 특정 질환의 규정된 기간 전에 수술을 하거나 2~3주 이상 입원하면 치료비를 삭감당하고, 염증이 걱정돼 항생제를 규정 일수 이상 쓰면 약값을 병원에 주지 않는다. 물론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런 답답한 사정은 행정 당국이나 정치인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인들은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 접근 문턱이 낮아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의사들의 반대 의견은 이기주의로 매도당한다. 그러나 의사도 생활인이고 기본적인 경제적 삶을 추구하게 되므로, 무작정 의사를 늘려 서로 경쟁을 유발하면 의료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그 결과는 과잉 치료와 국민 의료비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점이 인구 대비 의사가 많은 여타의 어느 선진국보다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전국 단일화된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치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고, 또 비교적 국도가 넓지 않고 교통이 발달돼 있어서 우리나라 정국 어디든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골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필자가 단언컨대 그만큼 대우와 처우를 개선해 준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시골 의사와 도시 의사, 시골 병원과 도시 병원, 그리고 지방 병원과 서울 병원. 각각은 정정만 하는 대립의 요소가 아니다. 서로 협력하고 합심해서 결국 공동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더 수월하고 좋고, 편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전 세계에 어느 나라, 누구와 비교해 내놓아도 최고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잘 지키고 유지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기고

코로나19 예방과 방역만이 살길이다



조귀임 전직 초등학교 교사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새 전 세계 감염자는 20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람이 밀집한 교회나 사찰, 요양시설, 유흥업소, 해외 선박, 음식점에서 식사 전 손을 씻고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을 하며, 공동 집게로 덜어 먹던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외출과 모임 시 고위험군 시설 방문이나 동호회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며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발열과 기침, 가래, 근육통 등 감염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제2의 피해를 줄이는 게 급선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유지하며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연구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방역 담당 공무원들과 의료진의 희생과 봉사 정신이 빛낸 '영광의 금자탑'이야 아닐까 하는 근지와 자부심을 가져본다. 짬뽕 더위에 무겁고 답답한 방호복으로 온몸을 감싼 채, 수술담으로 범벅이 되어 제대로 휴식도 못한 채, 혹사하고 무리하는 그들을 보면 고맙고 황송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한국 코로나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며 한국 민간 부분은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문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과 세계 보전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 한국의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덕분에 문 대통령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한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좋아지고 있는 나라는 볼 수 없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이탈리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어 불편과 고통의 나날이다.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정상화되길 기원해 본다.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진단 검사와 격리 등 해결책으로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국가로 부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그동안 비상 근무를 거듭하며 불철주야 애써 온 분들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社說

20년 전 수준 '정부 재난 지원금' 더 올려야

두 달 가까이 장마와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수재민에 지급하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실종구호금의 지급 근거 규정이 20년가량 묵여 있는데다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주택 침수 지원금 역시 지난 201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정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수재민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정부의 사망·실종구호금의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 원으로, 지난 2002년 지침 개정 이후 18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다. 주택 침수의 경우도 수재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 파손 또한 2018년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엔 발에 오줌 누기' 격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김영록 전남 지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회상으로 주재한 집중 호우 긴급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현 재난 지원금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개선을 건의했다고 한다. 전남 지역은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2338동(전파 18동, 반파 17동, 침수 2303동)이나 된다. 현행 지침대로라면 수재민에게 주택 복구비용이 지급되는 금액이 100만~1300만 원인데, 이는 사실상 맨손으로 일어서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시지탄이나 어제 당·정·청이 수해 등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종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주택 침수의 경우도 수재민에게 최대 100만 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 역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과는 거리가 먼 만큼 더욱 더 상향 조정이 필요하겠겠다.

통합당의 잇단 '호남 구애' 과연 진정성 있나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잇그제 막대한 폭우 피해를 입은 구례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친 데 이어 다음 주 다시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호남 민심을 향한 적극적 구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중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단체 관계자 및 지역 경제인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새 정강 초안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은 것을 계기로 '호남 끌어안기'에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5·18 묘지를 참배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합당은 국민통합특위를 만들기로 하고, 위원장에 호남 출신인 정운천 의원을 내정했다. 이에 앞서 통합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구례를 찾아 피해 현황을 파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주

원내대표와 당원들이 수해 복구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통합당의 호남을 향한 이러한 '구애 행보'는 김 위원장이 강조한 '탈이념·탈지역·탈지역' 정당으로의 변모를 위한 작업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최근 호남에서 통합당의 지지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는 점에 고무돼, 그간의 '영남 정당' 이미지를 깨고 호남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수도권 중심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일 수도 있겠다. 어찌 됐든 지역민들은 이처럼 확연히 달라진 통합당의 모습을 반기면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한나라당 등 과거 통합당의 전신이었던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호남 구애에 나서곤 했지만 투표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흠대를 반복하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당은 이제 정치공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호남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無等鼓' (Mueunggu) featuring a drum image and text about flamenco and world music.

Advertisement for '光州日報' (Gwangju Ilbo)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